

寫眞으로 보는
사진집 「On The Table」 발간

「On The Table」 정창기 사진집

사진가 정창기씨의 전시회가 지난 9월 11일에서 24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룩스의 기획초대전으로 'Flowers'란 제목으로 열렸다. 이번으로 5회째를 맞는 정창기씨의 개인전은 그동안 촬영한 정물사진 중 꽃을 소재로한 것으로서 약 20여점이 전시되었는데 그곳에 그의 사진집 'On The Table'이 있었다. 그가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산속 그의 작업실에서 홀로 작업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써 손수 유제를 제작해 만든 백금인화와 새롭게 시도하는 디지털작업으로써의 꽃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연스러움을 사랑하는 작가의 조용하지만 힘을 느낄 수 있는 사진집이다.



Agaricus Bisporus Mushrooms, 1995



Rotten Pear on a Tray, 1994



Two Onions, 1997

작가의 이야기

내가 정물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나의 작업실을 산 속으로 옮기고 나서부터였다. 그 전에는 주로 인물사진을 촬영했었는데 작업장을 이 곳으로 옮긴 후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물사진과는 멀어져갔다.

산 속에서는 부딪치는 대상이 풀, 나무, 곤충, 열매 등 전부 땅과 밀접한 대상들이었다. 게다가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혼자 생활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고 식사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요리도 손수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 사진들 중에는 부엌에 굴러다니는 양파라든가, 조리직전의 생선, 채소등이 등장한다.

나는 이 피사체들을 초기에는 평면 위에 -마치 판화에서 보이는 시각처럼- 배열하고 그에 어울리는 배경은 직접 페인팅해서 쓰기를 즐겨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테이블위로 피사체를 옮겨갔으며 중간에는 전자와 후자 동시에 행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의 정물 사진찍기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에만 이루어진다. 혼자서 마당이나 뒷산을 어슬렁거리거나 혹은 나무 밑 의자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나뭇잎이나 풀잎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감상하다가 무엇인가 피사체가 눈에 들어오면 주워 들고 와 놓아두고 관찰한다. 그러다가 피사체와 내가 마음이 통했을 때 비로소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거나 작위적인 요소가 있는 사진은 어느 꽃이 예쁘다거나 시각적으로 좋다하여 일부러 시장에서 소재를 사다가 테이블 위에 바로 올려놓고 찍는 경우들이다. 그것들은 생동감이 있을지언정 감정을 움직이는 깊은 맛은 없다. 그것들은 마치 잘 포장된 상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난다.

나의 사진찍기의 초기에는 머리 속에서 영상을 주로 생각을 하고 상상과 겹쳐서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리 속의 상상이나 아이디어로서는 아무것도 찍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체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출적인 사진을 만들어 내기가 일수였다.

앞으로도 나의 사진찍기는 무엇에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 일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목적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창작행위, 그리고 그것은 내 생활 자체이고 나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The Shadow of Poppy, 1994



Poppy, 2000



Dried Poppy, 2000



Bridal Wreath & Bush Clover, 1999